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7월 5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설교제목 :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엡5:18)이라고 합니다. 본문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우리는 항상 본문의 맥락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문맥을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우선적인 과제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문맥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범사가 뭘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하였는데, 감사할 내용이 없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감사의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반기 동안 삶에는 고단함과 가난만이 더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억지로 짜내듯이 감사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어서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뜻’이란 영어로 ‘will’(의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구절이 로마서 8장 31-32절입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의지를 보면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답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감사의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껌껌한 어둠만이 짙어지고, 고통만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가만이 안계신다는 것입니다. 숨어계신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빈 삶인 것 같은데도, 감사의 내용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뭐라고 덧붙입니까? 죽음과 같은 현실 속에 있으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롬8:36-37)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록한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 2:6을 봅시다. **아가2:6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성경에서 ‘팔’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왼팔로 머리를 고입니다. 왼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팔은 안아줍니다. 그렇다면 여인이 왼팔에 누웠을 때, 남자의 왼팔은 보입니까? 안보입니까? 안보이는 팔입니다. 무슨 팔만 보입니까? 오른팔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보이는 왼팔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안 쓰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계십니다. 사실 더 힘든 팔이 왼팔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상황은 어렵고 나아지지 않아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씀드렸습니

다. 억울한 시간, 앞뒤를 알 수 없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믿음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상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되는 상황, 예기치 못한 고난의 상황 등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 눈에 하나님이 왼팔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머리를 고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상반기의 삶은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일마저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 내몰렸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상황은 더욱 힘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감사의 자리에 데려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맥추절의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출23:16을 보면, 맥추절을 지켜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출23:16**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사실 이 명령은 광야에서 주어졌는데, 광야에서는 지킬 수 없는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씨를 뿌리고 경작하여 추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맥추절을 지키라는 명령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만 지킬 수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까? 비록 광야의 삶을 살더라도 반드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광야같은 삶을 살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같은 삶에서도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조건과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에 대한 감사입니다. 따라서, 범사의 감사는 과거의 감사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은 지금의 내 상황은 조건은 감사할 근거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반드시 감사하는 자리에 두실 것이란 고백이 됩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의지로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으로 인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2)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 4)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내용들이 있으면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